

## 산업보건사업과 나의 소견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지부장  
심 윤 택

일전에 발족한 학회의 창립선언문을 볼 수 있었다.

작업보건과 환경보건에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 각 분야별 전문가들간에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 작업보건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등. 다소의 의견차이는 있으나 오래전부터 산업의학을 전공한 학자,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산업보건의 기타 여러 직종 관계자들의 생각도 동일하다고 믿는다.

1970년대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현재까지 노력하신 원로 선생님들과 1990년을 전후하여 산업보건사업에 참여한 젊은 학자 및 의료인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산업보건분야도 선진국 수준으로의 진입단계라고 생각된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의 산업재해발생추이를 보면 산업재해의 발생율은 1987년(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에 총근로자의 2.66%이던 것이 산업재해예방사업을 꾸준히 해오므로써 1996년에 0.88%로 1% 이하로 감소되었고 도수율은 9.8%에서 3.5% 강도율은 2.9%에서 2.2%로 발생율과 도수율은 감소되었으나 강도율은 별로 줄지않아 사망 또는 중증재해의 발생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 근로자, 사업주, 정부가 각종 직업병은 물론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신규 화학물질에 의한 새로운 직업병과 스트레스에 의한 직업관련성 질환 및 누적외상성 질환 등 건강장애의 총체적인 관리와 건강유지향상을 위한 이론과 기술 및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대한산업의학회는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여 그간 산업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어 장기간 노력한 결과 산업의학전문의 수련제도가 확립되어 1997년 첫 전문의 100여명이 배출되었으며 현재는 200여명의 산업보건전문의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정규수련과정을 이수한 산업의학 전문의를 배출하게 된다. 이들 전문인력 특히 젊은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선배가 개척한 산업의학분야의 문제점을 계속 연구·해결할 의무를 가지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노력하여 산업보건의 문제점을 재정리하여야 한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은 산업보건사업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1983년부터 1994년까지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관할지역 의료기관의 소재지,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노동부는 관할지역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관할지역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유경쟁 원칙에 위배되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1995년부터 해제되었다. 또한 제도나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이 산업장 또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없고 수익성을 고려하여 큰 규모의 사업장만을 선호하게 되어 영세소규모사업장은 기피되는 경향이 많다.

산업보건사업의 목적중의 하나인 조기진단은 이미 직업병에 이환된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과를 곧 기대할 수 있으나, 직업병의 예방은 건강한 사람이 대상이 되고 직업병의 특성상 만성적인 경우가 많고 발생진행에 시일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역설하여야 한다.

또 보건의료 서비스도 문제점의 하나이다. 산업장과 근로자에 대한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치료의학에 치중, 예방과 재활의학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보건교육이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서비스는 전무하다.

특수건강검진 서비스도 검진항목이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특수질병에 대한 판정시비, 작업환경측정, 일반건강검진,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을 비롯한 여타 기관의 예방, 치료 재활, 보상 등의 서비스사업과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검진후 유소견자의 사후관리에도 주력하여야 한다.

보건관리대행에 있어서도 93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이 개정되어, 전체적으로 외부지원 형태의 보건관리대행이 증가하고 사업장 자체의 보건관리자는 감소하고 있는 관계로 외부기관에 의한 위탁업무형태라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1개 사업장을 월 1~2회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어렵다.

또 사업내용이 포괄적이고 단순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참여율이 낮아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요원들간의 팀웍 부족 및 교통에 소요되는 시간 등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제 산업보건전문의를들은 산업보건인의 권익 뿐만 아니라 산업장의 재해예방, 직업병조기발견과 예방치료 등에 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고유의 역할과 임무를 확고히 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